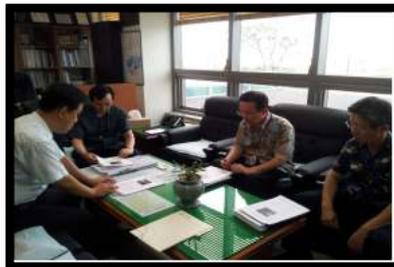


최악의 가뭄 극복을 위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 강화



2013년 여름,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북서쪽으로 확장하고,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위치하여 제주도에 폭염과 무강수가 지속되어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였다. 땅은 점점 메말라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결국 중산간 지역에서는 8월 6일부터 무기한 격일단수가 시작되는 아픔이 있었다. 7월~8월 제주도지역 평균 강수량은 104mm로 같은 기간 평년(492mm) 대비 21%, 작년(787mm) 대비 13%로 매우 적었고, 폭염일수는 제주 23일, 열대야 일수 제주 51일로 관측 이래 최다 열대야 일수를 기록하였다. 이에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의 상황판단 지원을 위한 지역기상담당관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가뭄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기관장 및 지역기상담당관의 선제적인 가뭄 대책 지원 활동으로 기상청의 역할과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봉사활동 실시

제주케어하우스(제주시 영평동 소재)는 뇌병변장애 등 3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 곳으로 자원봉사자의 후원과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제주지방기상청에서도 9월 7일 16명의 직원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생활관 등 건물내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아직도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 실시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대표적인 기상현상인 강수와 제주도 지하수 자원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확보 정책의 공유를 위해 7월31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제주도 지하수 부존특성 및 관리현황'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강봉래 전문연구원의 특강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외부기관에 대한 업무이해를 통한 향후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 활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9월 23일에는 예보국 정준석 총괄예보관의 '에너지 관점에서 바라본 대기 연직운동의 입체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전문가의 예보 노하우를 전수받고 예보능력을 배양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3개월 기상전망

구 분	10월	11월	12월
평균 기 온	평년(18~19°C)보다 높겠음	평년(13~14°C)보다 낮겠음	평년(8~9°C)보다 낮겠음
강 수 량	평년(80~82mm)과 비슷하겠음	평년(62~71mm)보다 적겠음	평년(45~48mm)과 비슷하겠음

2013년 3분기(23호)

2013년도 제주(청) 예보기술발표회 개최

지난 7월 25일, 위험기상과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이기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통해 예보 기술력을 배양하고 예보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주(청) 예보기술발표회'가 열렸다. 모두 6과제가 참여하였고, 이 중 '양상불 수치예보 결과를 활용한 주간예보 조기경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제주(청) 예보과 강영범 예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기상청 본선대회는 10월 24일에 개최된다.



보고싶은 요즘쟁이 기상기후 사진전시회 개최

제주지방기상청은 7월 26일부터 8월 4일,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각 절문자연휴양림과 서귀포감귤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기상기후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우수작 25점과 2013년 입상작 15점 등 총 40점의 사진을 전시하였고, 그 외 기후변화 홍보판넬 10점을 함께 전시하여 기상기후업무 홍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포토존을 운영하여 사진전시회 관람 후 체험사진 공모와 관람후기 공모도 병행하여 참여도를 높였고, 기상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확산시켰다.



[제주도의 렌즈운(7.8~7.9)]



제주기후사랑 어울림마당 행사 개최

제주지방기상청은 7월 28일 여름철을 맞아 절문자연휴양림 목공예 야외전시장에서 「제주기후사랑 어울림마당」을 개최하였다. 지역 기후변화 홍보를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기상사진전 입상작 설명과 지역 기후변화에 대한 강연으로 이루어졌으며, 생활미술공연과 성악이 함께하는 웃음치료 등도 같이 진행되었다. 뜨거운 햇살 아래 그늘을 찾은 제주관광객과 피서객 약 100여명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을 보였으며, 삼림욕과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다.



교장·교감 대상 기후변화 정책과정 운영

제주지방기상청은 8월 5일부터 9일까지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내 교육계 오피니언인 교장과 교감 33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정책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은 기상업무 이해, 기후정책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 소개 및 제주의 기상역사에 대한 특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제주도의 허파라 일컬어지는 곳자왓 답사 및 신재생에너지마을 현장학습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역의 교육리더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과정으로 지역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력 강화를 통하여 미래사회 준비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하였다.



[제주의 편현상]

지난 7월 8일 제주도에 나타난 전형적인 편현상으로 북부에는 대체로 맑고 고온현상이 나타난 반면 그밖의 지역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

- 북부 낮최고기온 : 32.5 °C
- 남부 낮최고기온 : 27.7 °C



지역기후서비스 과제발굴 협력간담회 개최

제주지방기상청은 7월 31일 산업분야별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을 위하여 산·연·관 협력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기후정보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역기후서비스 과제발굴 협력간담회」를 제주관광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16개 기관 33명이 참석하여 '관광지수 개발 사례' 발표와 함께 기후정보의 가치 향상과 산업분야별 기후업무 역할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과학 · 환경교사 기상기후과정 운영

제주지방기상청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초·중·고 교사 24명을 대상으로 「기상기후과정」을 운영하였다. 이 과정은 기상업무 이해, 태풍, 황사, 지진 및 지진해일 등 위험기상 바로알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운영되었고, 일선 교사들의 기상과학과 기후변화에 대한 교수능력 증대를 통하여 현장에서 기상·기후변화 교육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기상정보 활용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서귀포기상대에서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정부와 민간의 공개·공유·소통·협업을 통한 창조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2일 '민·관 공유·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의 날씨경영인증기관인 대국해저관광(주)의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기상정보 활용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관광산업에 필요한 기상정보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감귤산업 맞춤형 방제기상서비스 사용자 간담회

서귀포기상대는 8월 14일 '감귤산업 맞춤형 방제기상서비스 사용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간담회는 감귤농가에 제공 중인 맞춤형 기상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감귤농가를 기상대로 초청하여 가뭄 등 기상전망을 설명하고, 감귤기상서비스에 필요한 기상정보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감귤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기상대안 교류세미나 실시

성산기상대는 7월 12일 고산기상대 직원들과 함께 레이더와 고층관측 업무 등 노하우 공유를 위한 3차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레이더 장애 건수 제로에 도전한다" 라는 주제로 열린 토의가 이루어졌다.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실무자 간담회 개최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제주도내 기상관측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8일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측장비 운영 노하우와 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방안 등이 논의되었고, 지속적인 기상관측시설 표준화 동참과 기술지원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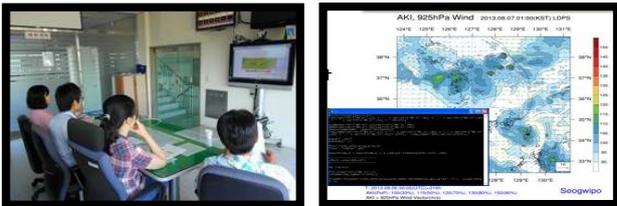
제주 환경축제 기상기후 홍보체험관 운영

제주지방기상청은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개최 1주년을 기념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환경축제에 기상기후 홍보체험관을 운영하였다.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운영된 기상기후 홍보체험관에서는 기후변화 홍보판넬 전시와 함께 기상교구(풍향풍속계) 만들기 체험행사도 이루어졌다. 이 행사를 통하여 대국민 기상기후업무를 홍보하고 지역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이해확산을 도모하는 장이 되었다.



수치자료 처리 및 표출 스테디 실시

8월부터 서귀포기상대에서는 '수치자료 처리 및 표출 스테디'를 시작하였다. NCL(NCAR Command Language)을 이용해서 수치자료를 가공하고 시각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스테디그룹을 만든 것인데, 철저히 실습 위주로 운영하면서 9월까지 총 4회의 모임을 가졌다. 특히, 직접 만든 스테디 자료집은 책자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다른 기관에서도 공유를 원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웃사랑-나눔문화 실천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서로 돕는 사회분 위기를 조성하고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지난 9월 16일 주위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였다.



「똥다! 어린이홍보대사」 기후변화 현장테마기행

제주지방기상청은 8월 29일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똥다! 하늘사랑 어린이 홍보대사」 8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현장 테마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어린이 홍보대사들은 기상레이더 현장방문과 고층기상관측을 직접 체험하였으며 기상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안덕면에 위치한 용머리해안을 방문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뚜렷이 나타나는 현장과 기후변화 홍보관을 견학하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 '농업마이스터대학' 기상대 방문

9월 16일 제주 농업마이스터 대학 학생 20명이 서귀포기상대와 성산기상대를 방문하였다. 농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상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맞춤형 방제기상서비스 등 대국민기상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있었다. 제주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에 대한 제주지방기상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